

"성모님의 손에 우리를 내어 맡깁시다. 매번 우리가 북주를 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8월 15일 삼종기도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ACN에서의 지금의 직무를 맡아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은 것 이 4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이토 록 많은 후원자들과 동료 직원, 명 예직 협력자들이 '실천하는 그리 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시키고자 노력한다 는 사실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사실이 제 결정에 확실한 영향 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로서 그들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 의 아드님을 더욱 깊이 있게 체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렇게 하여 그들은 한 사람 한 사 람이 등대가 되어 신앙을 빛나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복음 화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이런 길에서의 신앙 체험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증 대됩니다.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를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재단의 중심 과업에 속합니다. 여러분의 모범과기도, 후원은 이 사명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수석 사제 안젤로 코마스트리 추기경은 깊은 감동을 받았 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얘기하곤 했습 니다. "로마에서 마더 테레사와 함께 바 티칸으로 타고 갈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멈 추어 섰는데, 수녀님을 알아본 운전자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수녀님, 무엇을 기 다리고 계십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즉각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대 답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성녀만이 곧바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며,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모호한, 잃어버린,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진 '불확실한' 어떤실재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죽음과 '그 이후'에 몰두하지않으려고 평생 자신의 생각에서 밀어내는 아득히 멀리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첫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하느님의 사랑이 찾아간 곳이라면 어디서나 우리는 이미 천국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사제들에게 성사를 통해 천국을 이 땅으로 불러내는 전권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국의 빵, 곧 성체와 성령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비신자들조차도 천국을 향 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 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이들이 '행복의 나 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천국을 비웃고 값싼 위로라고 매도하며 세상의 폭력과 증오, 고통으로 인해 빛을 잃어버 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정 과 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행이 죄갚음을 당하지 않고 폭력의 희생자가 영원히 희생자로 만 남는다면 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모든 악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 며, 이것만이 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게 정의를 약속하고, 그들을 보상하고 모 든 것을 다시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발다라는 한 프란치스코회 수녀가 지 체 장애가 있는 소년에게 다소 부주의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비, 너도 걸 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자 그 아 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만약 천 국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지요!" 하느님 나라는 이처럼 어린이 같은 순수한 영혼 의 것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 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 해 천국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기를 바라 십니다. 저희와 다른 죽은 이들을 천국으 로, 성인들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성모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사다리 로 묵주를 건네주십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 분의 신앙과 사랑을 통하여 세상 안으로 빛을 비추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하느님께서 저희 언어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첫 번째 성경책을 기억하십니까? 에덴동 산의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탄생, 가나의 혼 인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이 모든 이야기와 그림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ACN은 42년 전부터 「어린이 성경 -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 경 은 지금까지 191개 언어로 번역되어 5100만 부 이 상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기도하 고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자신 의 언어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서부에서 칼랑가 부족의 어린이 들이 「어린이 성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에게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상상이 아주 새로울 것입니다. 칼랑가족은 19세기 이래로 제국 주의 통치자들과 그 이후 정권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 온 은데벨레족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칼랑가족의 언 어가 짐바브웨의 공용어 중 하나로 인정받고 188개 학 교에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학교 교과서 외에 다 른 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동안 칼랑가 어로 「어린이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으로 12,960권의 칼랑가어「어린이 성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1690만 원의 출판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글: 엘레오노레 베크 그림: 미렌 조르네 번역: 성찬성 | 196쪽 | 비매품

「어린이 성경」은 여러 해외 국 가로 지원됩니다. 한국어판 어 린이 성경은 비매품으로, 어린 이 성경 사업을 후원하시는 분께 1권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Q www.churchinneed.or.kr/childs-bible/



ACN은 10월 묵주기도 성월에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 도' 캠페인과 연계하여, 칼랑가어 「어린이 성경」을 포함해 어린이 신앙 교육 및 사목 지원에 대한 모금을 펼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이 책을 선호합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아프리카의 지역에 서「어린이 성경」은 문맹 퇴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우리 엄마가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글 읽기 를 공부해요!" 앙골라에 사는 한 어린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 성경」은 단순히 작은 한 권의 책으로 그치지 않 습니다. 이는 곧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손에 책을 꼭 쥔 채 성당으로 옵니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이들은 성경책을 통해 하느님께서 보 호해 주시며, 그래서 길을 걸을 때 자기들이 보호받고 있 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열대 우림, 아프리카 사바나 지대, 대도시의 수 많은 빈민가, 난민 캠프, 심지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린이들은 다채로운 그림과 글로 만든 '보물'을 놀란 눈으로 감탄하며 읽습니다. 「어 린이 성경 은 그렇게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계속해 서 탐독되고, 해가 지나고도 어린이들의 품에 꼭 안겨 있 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책은 하느님이 자신들 을 사랑하시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는 것을 증거합니다.

가장 큰 선물

7HLI TIFOLETIL

2020년, 세계 어딘가에서 18초마다 한 사제가 ACN 후원 자의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782,097대에 걸 쳐, ACN 후원자분들이 보낸 예물이 거룩한 희생 제사를 통 해 봉헌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영혼, 아 픈 이의 치유, 신앙심을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부모 혹은 조부모의 고통, 그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사제에게 미사 봉헌을 청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히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흔히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인 성체를 함께 나눕니다. 이때 사제가 받는 미사 예물은 '보수'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이며, 우리의 지향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내적으로 일치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의 사제들에게 미사 예물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사제들은 이를 통해 치약이나 신발, 의약품과 먹을 것을 조달하고, 사목 활동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프란시스 야가우 신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미사 예물 지원 덕분에 제가 제병과 포도주를 마련하여 성체 성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사목하는 10개 공동체를 매달 방문할 수 있습니다." ACN은 프란시스 신부가 속한 알로타우 시데이아 교구 사제 18명에게 2021년에도 1980만 원 상당의 미사 예물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사제들 또한 미사 예 물 지원에 의지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보수가 없거나 있 다 해도 아주 적은 보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본당에서 부 수적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래의 사제 들을 교육하는 일에 아주 큰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 다. 이에 ACN은 수많은 신학교 교육자들을 돕고 있습니 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가나의 사 제들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예전처럼 계속할 수 있었 습니다. 물론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요. 하느 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라고 타말 레의 성 빅토르 신학교 학장은 이야기합니다. ACN은 가 나의 3개 신학교에서 일하는 사제 17명에게 약 2530만 원 의 미사 예물을 지원합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고, 예수 성심의 사랑 안에 서 젊은 신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파도 속 구명 튜브

2차 팬데믹의 물결이 대비도 없이 대 대적으로 인도를 덮쳤습니다. 병상, 산 소, 보호 장비, 백신 등 모든 것이 부족 한 상황입니다. 인도 가톨릭교회는 두 려워하지 않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지난 7월 15일까지 적어 도 520명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차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친구와 친척들의 부고를 받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보다 최소 10배이상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곳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앞에서도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도시에서는 온라인으로 사목

활동이 일부 이루어질 수 른 저개발 지역에는 인터! 는 사제들이 직접 사람들을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그들은 빈손으로 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차 팬데믹 시기 인도의 약 5천여 명에게 22억 1천만 즉각 지원했습니다. 델리다 주교는 ACN의 후원자분들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의 중을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언론이 보도하는 테러 사건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021 년 6월 4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국경의 솔한마을 근처에서 이슬람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이 벌인 공격은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160명 가까이 살해당하고 수많은 집들이 불에 타 쓰러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주교회의는 '테러의 밤'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테러의 공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지하디스트들은 부르키나파소 북부와 동부에 칼리프 제국을 세우려 합니다.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곳이 유령 도시가 되었고 본당은 버려졌으며 1천 개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납치되어 강제로 어린이 병사가 됩니다.

2018년 8월, 부르키나파소 동부의 파마 본당이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세계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총 사격과 방화로 평화롭던 삶이 끝났습니다. 현재이곳은 테러 단체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거나 갈수 없었던 이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해졌고, 이는 주민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또한 잠정적인 마비 상태입니다. 한때 모든 것이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토착 신앙을 고수한 12개 마을의 주민들이 최근 복음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들이 모두 감동하며 교리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10개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당 공동체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을 계속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폴리테 바코마 신부는 이야기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우리 신자들을 한데 모아 신앙심을 키우고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소도시인 파마에는 시립 방송국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이용하여 매주 4시간씩 영적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용기를 얻고 열정적으로 모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현금'이 오늘날 부르키나파소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ACN은 부족한 재정에 약 1170만 원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라디오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오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있지만, 밀림이나 다 렛이 없습니다. 그곳에 을 찾아가서 위로를 전 나. 거대한 빈곤의 파도 1저 서 있는 일이 다반 타개하고자, ACN은 2 100개 교구 소속 사제 원 이상의 미사 예물을 내교구장 아닐 쿠토 대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 과 사랑이 앞으로 나 등인이 될 수 있도록 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의 다른 주교들도 같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추가로 40개 교구의 2,770명의 사제들에게 약 11억 1천만원의 미사 예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적절한 때의 '구명 튜브'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8천 명 있는 이웃나라 **네팔**에서 도 구조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히말라야산맥에 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팔대목구장 폴 시믹 주교는 "여러분이 미사 예물을 우리를 위해 조금이나마 남겨 주신다면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제들의 생계와 의료품 공급을 위해서나 여러 사목 활동을 위해서도 미사

예물이 유일한 지원입니다. 저는 최소한 가장 외 딴곳, 가장 가난한 본당의 사제들만이라도 돕고 싶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 후원으로 ACN은 약 3120만 원의 미사 예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팔의 사제들이 빈곤의 파 도 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제가 카누를 타고 오는 곳

아마존 특별 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 「사랑하는 아마존」 (Querida Amazonia)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마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대 우림에 있는 많은 마을들에 닿으려면 보트가 있어야 합니다.

보라질의 워싱턴 지올레누 아라우주 타베레스 신부가 작은 목재 카누에 앉아 노를 저으며 출발할 때는 하느님 께 대한 큰 신뢰가 필요합니다. 악어 떼와 급류, 물속에 떠다니는 나무줄기들과 궂은 날씨도 문제지만, 그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카누를 타면 겨우 앞으로 느릿느릿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많은 복음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워싱턴 신부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30세로, 사제서품을 받은 지 이제 4년 되었습니다.

워싱턴 신부는 아마존강 삼각주의 쿠랄리뉴에 있는 세례자 요한 성당을 맡고 있습니다. 본당 관할 구역이 엄청나게 크며, 57개 부락이 강기슭에 널리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출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으며, 삶이 곧강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합니다. 교회에 있어 이것은 시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여러 신흥 종교가 확





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도 늘어납니다. 복음의 기쁜 소 식과 성사,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터보트가 있다면 훨씬 빠르고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보트 한 대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젊은 사제와 그의 사목팀이 전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더 많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은 작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워싱턴 신부가 선교를 위한 보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한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 지대 아마존 지역의 3개 본당에는 이미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관할 교구는 상 가브리엘 다 카초에이라 교구인데, '폭포의 성 가브리엘'이라는 뜻입니다. 이곳 지역에는 실제로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라는 지역적인 특성은 선교에 있어 도전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제들에게는 연료비가 가장큰 골칫거리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ACN은 1년 동안 필요한 연료비 총 195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도시 정글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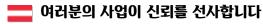
벨<mark>라루스</mark> 수도 민스크에서 체슬라바 수녀와 우르술라회 수녀들은 노숙인, 장애인, 그리고 파괴된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찾아가 이웃사랑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흔히 영적 곤궁이 물질적 빈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과 희망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다니며, 그것으로 절망의 어둠을 밝힙니다. 수녀들은 사회 사목 센터에서 각 가정이 하느님을 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 생활을 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민스크는 대도시입니다. 낡은 자동차로 사방팔방으로 달리다 보니 주행거리가 벌써 50만 km에 달했습니다. 수리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자동차의 수명도 다 되었습니다. 위기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새 차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몇 명과 설비를 운송할 만한 크기의 자동차를 구할 수 있도록, ACN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약 32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times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ACN 「2020 연간 보고서」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가톨릭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국제 선교의 영역 안에 현존하며 참여하고 파트너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꾸준한 관심사가되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는 후원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진심으로 기뻐해도 좋습니다. ACN의 사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희망과 신뢰를 선물받을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ACN이수행하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빕니다. - 오스트리아의 주교

🚹 제 삶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ACN을 후원하고 있으며, 「사랑의 메아리」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메아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안의 글들을 자주 두세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 글들이 기도 생활 안에서 저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83세에 독신인 제가 "제 삶이 기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응답"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필리 4,4) ACN의 놀라운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건강과 용기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삶에 감사하며

후원금 약 6만 원을 동봉하오니 가장 고통받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좀 더 젊기를 바랐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런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난 여름 9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살아 있게 하시는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제 삶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를 조금 더 이곳에두기 원하신다면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도 절망에 빠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요?

🌄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매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ACN이 전세계적으로 후원자의 날을 기념하며 후원자들을 위한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한다는 소식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물인지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③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은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 ▋ 복음 전파에 대한 감사

친애하는 ACN 친구들께. 여러분의 멋진 소식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 행하는 고된 작업에 대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 아일랜드의 수녀

하느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청하며 격려하는 여러분의 소식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꺼이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초라한 우리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토록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히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내려주시도록 간청하기에 말이지요.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통해 전 세계의 ACN 후원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 세요.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는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ACN은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을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의 날로 지정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을 묵주기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오상의 성 비오 신부의 말씀)

2020년은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의 기록 경신의 해였습니다. 136개국에서 어린이들이 10월 18 일에 세계 평화와 일치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 700여 명이 함께 하 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 참 여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바치는 기도 가 하느님 마음에 드실 것이며 힘을 갖고 있고,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아르투아 자라스 신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콩고 민주 공화국, 베네수엘라, 인도등 다른 많은 국가의 어린이들도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느님 아버지 마음에 간청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월), ACN은 다시 한번 모든 본당과학교, 유치원 그리고 각 가정의 어린이들이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은 성모 마리아와 더불어 성 요셉의 해를 지내며 성 요셉과도 함께 합니다.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

ACN 어린이 묵주기도 패키지

한국에서 더 많은 어린이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어른이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8일 오전 9시,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요!

https://bit.ly/1mChildren



위 신청하기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 관련 문의: 010-7475-6440 (문자 상담)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